

宋代의 冠服에 관한 研究

- 公·常服을 중심으로 -

暎園專門大學 衣裳디자인科
副教授 徐玉卿

目次

I. 序論	V. 宋以後의 公·常服
II. 歷史的 背景	VI. 結論
III. 宋以前의 公·常服	參考文獻
IV. 宋代의 公·常服	ABSTRACT

I. 序論

冠服은 時代的 特性을 代辯하는 服飾의 代表的 分野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冠服을 통하여 그 時代의 政治的 特性·支配의 思想·宗教 및 價値觀 그리고 外來文化와의 必然的인 聯關關係를 살펴 볼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中國 宋代를 택하여 그 時代의 百官 冠服 중 公·常服에 한하여 考察하였으며, 그 時代相과 그 時代 外來文化와의 關係가 어떻게 反映되었는가를 分析해 보고자 한다. 宋代의 公服構成은 幘頭, 圍領袍, 帶, 笏, 魚袋, 靴이며, 常服은 대체로 公服을 그대로 通用하였으리라고 보고¹⁾, 公服과 常服은 服色, 魚袋와 帶, 笏의 材料에 따라 品階의 等位를 가른 것이다.

本 論文의 研究目的은 宋의 冠服制度 중 公·常服의 體系를 整理하는데 있다. 研究範圍는 宋代以前의 冠服制와 宋代 冠服制 중에서 公·常服을 대상으로 한다.

中國服飾 資料로는 宋史 輿服志, 宋會要, 二十五史를 中心으로 한 古文獻 解釋과 圖證資料로는 敦煌 千佛洞 壁畫 및 石窟 發見으로 보아 그 대부분이 唐末에서 宋初에 이르는 사이에 製作되었다는 것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이기에²⁾, 敦煌壁畫와 三才圖會 등을 주로 하여 究明하였다.

II. 歷史的 背景

唐의 찬란한 文化가 종식을 고한 다음에 中國은 다시 혼란을 거듭하다가 宋의 出現으로 統一國家가 再現되었으니 唐代文化의 후계자로서의 宋代文化가 또 한번 찬란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趙匡胤이 960年 皇帝位에 오르고 宋朝를 建立하여 중원과 남방의 통일을 이룩하였는데, 汴京에 도읍을 정하고 北宋으로 일컬었고, 欽宗의 아우 康王鎬는 남쪽으로 장강을 넘어 臨安에서 稱帝 등국하였는데 南宋이라 하였다.

당시 中國 西北地域에는 契丹族이 遼를, 1127年

1) 宋史, 卷一百五十一志 一百六 輿服五

2) 原田淑人, 西域發見의 繪畫에서 보이는 服飾의 研究, 東洋文庫刊行, 大正十四年, P. 9.

에는 東北地域의 여진족이 金을 건립하였기에 宋代는 政治 정세가 唐代와 같이 견고하고 安定되지 못하여 對外政治面에서 굴욕적인 타협을 하기도 하였다.

五代는 短命王朝가 亂立했으므로 冠服制度도 정리되지 않았고 唐代의 服制가 그대로 행해져 宋代에 들어와서도 잠시는 唐制에 의하였으나 南宋時代로 들어오면 服制는 變化되었었다.

宋代에서는 兵權과 財政權이 분명히 나누어져 軍人에게는 財政에 干與시키지 않았기에 文官優位の 體制가 確立되었었다³⁾.

宋의 太祖가 唐以後의 分裂體制를 統一하고 (960), 中國에 50여년의 平和가 오니 國內産業뿐만 아니고 外國貿易도 성하게 되었고, 建國以來 外征보다도 內政의 充實에 역점을 두고 漢代以來 中國貿易의 主役이었던 絹의 生産을 장려하였으며, 絲에서 織物까지의 一貫作業에 의하여 天下에 有名な 蜀錦의 大量生産을 계획하였다.

宋代는 地方都市의 發達과 流通經濟의 擴大에 따라 地主와 豪商이 舊貴族에 대하여 새로운 社會勢力으로써 대두되니, 南北朝經 新設되었던 科擧制度를 強化했던 것에 의하여 一般庶民中에서 新官僚가 만들어지고 士大夫라 불리는 새로운 階層이 形成되었었다. 이같은 新興階層은 自由롭고 解放的인 新文化를 만들었던 風상이 되었으나 服飾에 대하여도 唐代와 같은 胡風禮讓의 風潮에서 탈피하여 漢民族 固有의 傳統에 復歸하려고 하는 復古調가 盛하였으나, 한편으로는 自由解放的인 庶民文化를 反映하는 새로운 風潮가 생겼다.

宋의 建國初에는 衣服制度를 唐制로 襲用하였고, 健隆 2年(961年)에 太祖는 崇義의 秦淸에 따라 [三禮圖]를 制定하여 禮服制度를 傳統에 입

각하여 제정비하였다. 이를 始初로 前後 27次에 걸쳐 服制改定을 하였으나 百官의 公服은 唐에서 定制한 北方民族의 盤領袍衫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祭·朝服을 제외하고는 上下를 막론하고 通用되었으며 단지 服色으로 等位를 가렸다⁴⁾.

Ⅲ. 宋代 以前의 公·常服

後漢時代 明帝의 永平 二年(59) 與服領을 발표하고 周·秦·前漢의 制度를 계승, 정비하여 王公貴族과 文武百官의 服飾制度를 확립하였다⁵⁾.

南北朝는 漢民族인 南朝와 胡族(당시에는 주로 鮮卑族이었음)인 北朝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北朝의 天興 6年(403年)에 詔를 내려 服制를 定하였다. 以後 孝文帝의 太和(477~499年)間에는 朝服에 中國式 服制를 採用하여 五時의 服을 制定하고 袴褶을 平服과 亵服으로 制定하였으며 特히 緋色의 袍와 金으로 장식한 革帶를 重히 여겼으며 天子의 金帶에는 13個의 環을 붙이기도 하였다⁶⁾.

隋代의 初期 衣服制度는 漢의 制度를 따르면서 胡制를 廢止하였고 隋文帝때 漢·晉의 衣冠文物이 더욱 強化되었는데, 文帝가 발표한 開皇帝에서의 衣服令에서 보면 群臣百官은 祭服 14制, 朝服 3制로서 모두 漢의 深衣制 樣式이었다.

그러나 20年 後인 煬帝의 大業制에서 보면 百官의 服制가 簡素化되는데 祭服이 14制에서 5制로, 朝服이 3制에서 5制로, 그외 公服 1制, 常服 1制로 改定되었다⁷⁾.

隋나라에서는 常服, 公服, 朝服, 祭服으로 되어 있고 帝王 貴臣의 常服은 烏紗帽·黃文綾袍에 九環帶와 烏皮六合靴로 構成되어 있고 百官의 常服은 黃袍이다⁸⁾.

3) 佐伯富編集, 東洋의 歷史, (6) 宋의 新文化, 人物往來社, 昭和 42年, P.75.

4) 任明美, 中國의 古代服飾研究(1), 耕春社, 1988, p. 89

5)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文化出版局, 1979. P. 171

6)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P. 158~159.

7)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文化出版局 1984 P. 102~107.

8) 舊唐書 與服志

唐나라 武德 初에는 隋나라 制度에 따르다가 武德 四年(621年)에 衣服令을 내리고 群臣 冠服을 定하였는데, 3品以上은 紫色大科紬綾이나 羅袍에 玉帶를 하였고 5品以上은 朱色の 小科紬綾이나 羅袍와 金帶를 하였으며 6品以上の 服色은 黃色이다⁹⁾.

舊唐書에 요즈음 “常服이라고 하는 것은 讌服(褻服)을 말한다… 元正大會를 除하고는 입을 때나 寺院에 出入할 때 一切 通用된다¹⁰⁾.” 고 하였다.

唐人 중에서 관직이 있는 자는 公服, 幘頭를 몸에서 떠나지 않게하여 이로써 常服으로 남았으며 또 進賢冠, 中單服의 종류와 같은 朝服도 있다. 그 아래 또 省服이 있어 그것을 常服으로 입었는데 오늘날의 公服이 바로 唐의 省服을 입는 것이다¹¹⁾.

貞觀 四年(630年)의 品官 服色の 改正을 살펴 보면 朝服 및 公服을 章服이라고 하였다. 唐會要 卷31章의 服品第의 條目에 의하면 “三品以上은 紫色을 입고 四·五品以上은 緋色, 六·七品은 綠色, 八·九品은 青色을 입었고 婦人은 남편의 色에 따른다¹²⁾” 고 하였다.

高祖代(713年)에는 正式으로 周禮에 따른 冠服制를 公布하였다.

上元 元年(760年) 唐制를 보면 文武官 3品 이상은 紫·金玉帶 13鈞, 4品은 深緋·金帶 11鈞, 5品은 淺緋·金帶 10鈞, 6品은 深綠·銀帶 9鈞, 8品은 深青·鍮石帶, 庶人은 黃銅鐵帶 7鈞를 服하고 있다¹³⁾.

唐의 滅亡(907年) 後 中國周邊의 異民族이 계속하여 反亂하고 漢民族의 支配에서 脫出하려고

하는 기운이 일제히 일어났다. 蒙古系의 契丹, 티베트계의 吐蕃, 돌궐계의 위구르族이 勢力을 넓히고 中原에서는 後梁, 後唐, 後晉, 後漢, 後周 등 五代의 王朝가 興亡을 계속하고 唐代의 貴族社會는 完全히 崩壞되었다.

五代(907~960年)의 服裝은 服制上으로는 눈에 띄게 改正되지 않고 後唐의 明宗代에 一部 改正이 있었으나 대개는 唐代의 制度를 계승했던 것이다¹⁴⁾.

後晉의 天福 四年(939年)에는 元正朝會에서 常時 殿廷이 좁다는 理由로 皇帝는 朝服을 着用하지 않고 烏紗巾을 쓰고 黃袍를 입었으며 百僚(百官)는 公服을 입었다고 하는 公服着用의 記錄이 나타나 있다¹⁵⁾.

遼代의 官制는 北班, 南班으로 구분되어 北班은 契丹人 官僚를, 南班은 五代 後晉의 降臣과 漢人 官僚를 말한다. 遼의 大同 元年(天福 十二年) 一月 太宗은 民心 수습을 위해 衣冠을 中國風으로 고쳐서 北班(契丹人)은 國制(遼), 南班(漢人)은 漢制로 하도록 하였다.

皇帝는 百官의 朝賀에 通天冠, 絳紗袍를 입고 그후 朝會때 皇帝와 漢人臣僚는 항상 漢服을 입도록 하였고 5代 京宗 이후 乾亨時에는 朝廷의 大禮時에 漢服用의 범위를 3品 이상의 契丹臣僚까지 확대하여 7代 興宗의 重熙 이후에는 全朝廷閣僚의 禮服을 中國風으로 통일하였다¹⁶⁾.

遼 百官의 常服은 5品 以上은 幘頭(折上巾)·紫袍·牙笏·金玉帶이며 文官은 手巾·算袋·刀子·礪石·金魚袋를 佩하고 武官은 鞞鞞七事를 佩하며 烏皮六合靴를 신는다. 6品 以下는 幘頭·緋衣·木笏·銀帶·銀魚袋를 佩하고, 靴는 같고,

9) 舊唐書, 卷四十五 志二十三 與服

10) 舊唐書, 卷四十五, 志二十五, 與服

11) 舊唐書, 卷四十五, 志二十五, 與服

12) 原田淑人, 漢六朝의 服飾, 東京 東洋文庫 1967, P. 56

13) 唐會要, 卷 31 章服

14) 杉本正年, 東洋服飾史, 衣生活研究會 1978. P. 34

15)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4. P. 243

16) 田村實造, 契丹民族의 服飾, 考古學雜誌. 33 卷 12 號 P. 541.

8·9品은 幘頭·綠袍·鍤石帶이고 靴는 같다¹⁷⁾.

金(1125~1280年)은 女眞族으로서 遼와 北宋을 멸하고 滿州, 蒙古 및 中國 北部를 占據하여 漢族을 南쪽으로 追放시켰다.

金人의 常服 4가지는 帶, 巾, 盤領衣, 烏皮靴이다. 그 束帶를 일컬어 吐鵝이라 하며, 衣色은 대부분이 白이고, 3品은 藍이며 窄袖, 盤領, 縫腋이며 아래 주름이 지며 옆이 트이지 않는다. 가슴과 어깨부분에는 흑 金繡로 무늬를 장식하였는데, 길이가 정강이 뼈까지 와서 말타기에 편하게 하였다¹⁸⁾고 하였다.

大定(1161~1189年) 官制에 依하면 文資 5品以上은 紫色이되 品階에 따라 무늬의 크기를 制限하였으며 6·7品은 緋色, 8·9品은 綠色이되 무늬가 없으며 織物은 모두 羅로 하였다. 武官은 모두 紫色이되 散官과 職事官은 品을 울리며 窄衫도 역시 服色과 같게 하였다. 大定 十五年(1175年)에 袍에 縐를 加하지 않는 것은 옛 制度가 아니라고 하여 命을 따라 文資官의 公服에 모두 縐를 加하였다¹⁹⁾.

IV. 宋代의 公·常服

宋의 太祖가 五代의 혼란을 平定하고 天下를 統一한 것은 960年(建隆 元年)이며, 宋은 北宋(960~1127年)과 南宋(1127~1279年)으로 나뉘어지는데 衣冠制度의 대부분은 北宋에서 이루어졌으며 南宋에서는 조금 改定되었을 뿐이다²⁰⁾.

宋史 輿服志에 의하면 北宋時代의 主된 服制改革은 仁宗의 景祐 二年(1035年), 神宗의 元豐 四年(1081年), 徽宗의 大觀 四年(1110年)과 正和年

間(1113~1125年)에 4번 行하여졌으나 首都가 南으로 옮겨졌던 南宋은 高宗의 紹興 四年(1134年)에 1번 行해졌을 뿐이다²¹⁾.

從省服이란 唐代의 便服으로 朱子全書에 隨나라 煬帝時 百官의 戎服으로 着用하기 始作하였는데 唐人이 便服 또는 從省服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²²⁾. 宇文護가 袍에 縐를 加하기 시작하여 드디어는 後의 制度가 되었고 오늘날(宋朝)의 公服이 되었다²³⁾.

宋史 輿服志에 依하면 公服으로 具服일 때는 朝服이고, 從省服은 公服으로 常服이라고도 하며 從省일 경우에 公服이라 한다. 宋나라는 唐의 制度를 채택하여 三品以上은 紫色, 五品以上은 朱色, 七品以上은 綠色, 九品以上은 靑色이며 그 制度는 曲領大袖이고 아래는 橫縐이 加해져 있으며 革帶를 하고 幘頭를 쓰며 烏皮靴를 신는데 王公에서부터 士庶에 이르기까지 通服으로 삼았다고 한다²⁴⁾.

〈圖 1〉은 宋代 敦煌壁畫 중 榆林二十窟의 그림으로 깃의 曲領形態가 나타나 있다.

神宗 元豐 元年(1078年)에 있었던 服色과 笏에 대한 改定을 보면 靑色禁止와 4品까지는 紫色, 6品까지는 緋色에 象笏을 들고 佩魚했으며 9品以上은 綠에 木笏을 든다. 武臣과 內侍는 다 紫色을 입고 佩魚하지 않으며 象笏을 든다. 假版官 및 벼슬아치와 같이 技術있는 사람과 人品官은 綠色을 입으며 品職者는 服色이 변하지 않는다. 無職者나 服色이 변한 者는 年齡의 차에 따라 또는 特恩을 받아 服色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²⁵⁾.

〈圖 2〉는 南宋代 蔡沈像(1167~1230年)으로 笏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17) 遼史, 卷五十六, 志 第二十五, 儀衛志 二, 漢服

18) 金史, 卷四十三, 志 第二十四, 輿服下, 衣服通制

19) 金史 卷四十三, 志 二十四, 輿服中, 公服

20)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中華大典篇印會, 1978 P. 165

21) 杉本正年, 東洋服裝史, 東京 衣生活研究會, 1978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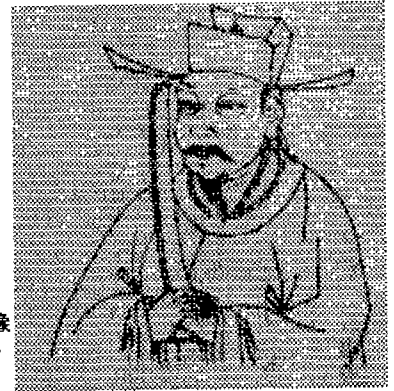
22) 朱子全書 禮

23) 事物紀原, 卷三, 公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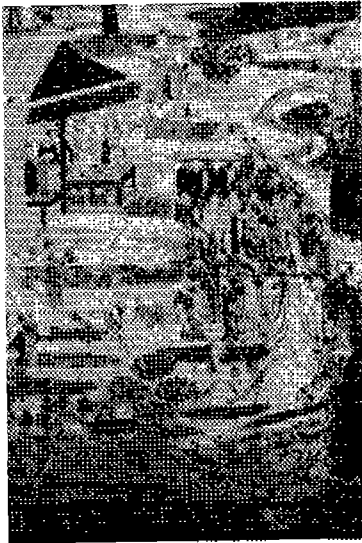
24) 宋史 卷一百五十一志一百六 輿服



〈圖 1〉宋 嫁娶圖, 榆林二十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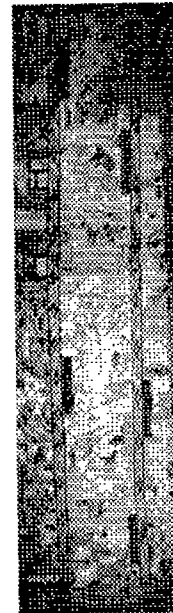
〈圖 2〉宋 蔡尙像
(1167~1230年)
三才圖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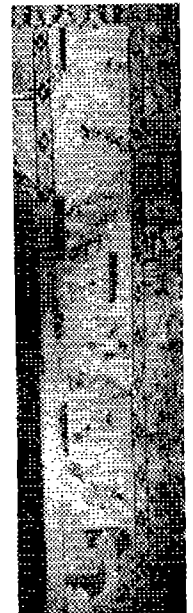
〈圖 3〉宋 嫁娶圖, 榆林三八窟



〈圖 4〉宋 樹上生衣, 榆林三八窟



〈圖 5〉宋金光明經變木者子流水品 第55窟



〈圖 6〉宋金光明經變舍身品 第55窟

宋代 敦煌壁畫 榆林三八窟의 그림에서 幘頭에 團領을 착용하고 있는 官員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圖 3〉宋 嫁娶圖, 〈圖 4〉宋 樹上生衣)

宋代 冠服의 形態는 敦煌壁畫 宋 金光明經變木者子流水品 五五窟 〈圖 5〉, 宋 金光明經變舍身品 五五窟 〈圖 6〉, 宋 長者子流水品 一五五窟 〈圖 7〉에서 볼 수 있듯이 幘頭를 쓰고 발등을 덮는 긴 길이의 團領을 입고 帶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

幘頭는 公服 및 常服 차림에 쓰는 모자이며 天子, 王公을 비롯하여 百官까지 一般 朝會나 公式 모임에 公服과 幘頭를 着用하였고 平常時에도 착용했다. 宋史 輿服志에 依하면 幘頭는 折上巾으로

後周에서는 軟帛으로 垂脚이며, 隋나라에서는 오동나무를 使用하기 始作하였고, 唐나라에서는 羅 대신 繪을 使用하며 帝王의 幘頭 脚은 위로 올려서 구부리고 人臣의 幘頭 脚은 밑으로 드리우게 하였는데, 五代에 가서 幘頭 脚이 漸次 平直으로 되었으며, 宋나라에서는 君臣이 모두 平角 幘頭를 着用하였는데 혹은 위로 올려서 구부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등나무에 풀을 엮어서 속으로 하고 그 위에 걸감을 紗로 하고 그 위에 옷칠

을 하였다. 그 이후에는 옷만 단단하게 칠하고 등나무는 떼버리고 앞으로 접고 鐵絲를 넣었으며 兩脚은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한다²⁶⁾.

〈圖 8〉(宋 長者子流水品 二五五窟)과 〈圖 9〉(宋 春遊晚歸圖)에 脚이 아래로 향해있는 幞頭形態가 나타나 있다.

帶를 살펴보면 “(前略) 宋制는 상세하여 玉, 金, 銀, 犀, 銅, 角, 石, 黑玉類가 있고 等差가 있었다. 公服에는 玉帶를 금했고 非品官은 犀帶를 통용하되 特旨를 받지 않는 자는 금했다. 庶民과 郡縣吏 및 技術等人은 銅, 鐵, 角, 石, 黑玉類를 사용토록 했다²⁷⁾.

太平興國 七年(982年)에 “三品以上 玉帶, 四品以上 金帶, 五·六品이 銀鈔鍍金, 七品以上 未參官이나 內職武官은 銀鈔, 八·九品以上은 黑銀, 나머지 冠服은 黑銀方圓鈔 犀角帶를 着用했다.

즉, 天子와 皇太子는 玉, 大臣은 金, 親王·勳舊에게는 玉을 下賜하고, 그 다음은 金鍍銀, 犀, 銀, 또 다음은 銅, 鐵, 角, 黑玉類이다. 元豐의 官制에 의하면 侍從官, 給事中以上이어야 金帶를 使用했다. 學士以上이어야 金帶를 사용했기 때문에 金帶를 使用하는 것을 榮光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金帶에 또 金魚袋를 차면 重金이라고 하여 더욱 더 貴했다.

北宋의 靖康 元年(1126年), 北邊의 強國인 金을 회유하기 위해 막대한 貨金을 늘릴 필요에서 高級官吏가 常用하여 왔던 金帶를 犀帶로 대신하여 金의 回收를 꾀한 적도 있다²⁸⁾.

魚袋는 唐制로 符契를 가리키는 것인데 처음에는 魚符라 하였으며 左, 右 각각 하나씩 둘로 갈라서 左側은 朝廷에 右側은 본인인 갖고 있다가(官姓名 새겨져 있음) 朝廷에 出入할 때 對照하는 것이었고 주머니에 넣었으므로 魚袋라 하였다. 이것을 宋代에는 魚形으로 만들어 金銀으로 裝飾을 하여 公服의 帶에 매어 뒤에 늘어뜨려서 貴賤을 나타낸 것으로 唐制가 復活된 것은 아니었다. 服色이 紫色이나 緋色인 者들에게 魚袋를 着用하게 하였는데, 紫衣는 金魚, 緋衣는 銀魚를 사용하였다²⁹⁾.

宋 歸義軍節度使 曹元忠像 〈圖 10〉에서 幞頭, 團領, 帶와 魚袋 그리고 靴의 끝부분을 볼 수 있다. 榆林二五窟의 宋 曹延綠供養像 〈圖 11〉에도 魚袋의 形態가 나타나 있다.

宋나라는 前 時代의 制度에 따라 朝會에 靴를 着用했다. 政和때 履로 바꿨다가 乾道 七년에 다



〈圖 7〉 宋 長者子流水品
一五五窟



〈圖 8〉 宋 長者子流水品
二五五窟



〈圖 9〉 宋 春遊晚歸圖

26) 宋史 卷一百五十三 志一百六 輿服

27) 宋史 卷一百五十三 志一百六 輿服五

28) 杉本正年, 前掲書. P. 35.

29) 宋史 卷一百五十三, 輿服志



〈圖 10〉宋 歸義軍節度使
曹元忠像



〈圖 11〉宋 曹延祿供養像
楡林窟 第二五窟



〈圖 12〉宋 陸秀夫像, 古今聖賢圖孝

시 靴로 바꿨다. 靴制는 履制에 參考하여 黑色皮革으로 목을 길게 만들었으며 속에 氈으로 대었다. 높이가 8寸이고 文·武官들이 모두 착용했다. 각 官職 服色에 따라 綠色服에 綠色, 緋色服에 緋色, 紫色服엔 紫色의 테를 둘러 裝飾했다. 履屨의 창에 나무로 된 것은 석이라고 부르며 祭服에 사용되었다. 목이 긴 것은 북쪽 영향을 받은 것이다.

宋代에는 金紫나 銀緋를 下賜받는 것이 무척 榮光스러운 일이었다. 金紫란, 金으로 된 魚袋와 紫色의 公服차림이며, 銀緋는 銀魚袋와 緋色 公服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외에 借紫와 借緋란 것이 있는데, 즉 官品에 따른 服色외에 節鎭이나 奉使의 官職으로 파견되는 경우에 紫色 公服을 빌려 쓸 수 있다. 또 知防禦, 團練, 刺史등 원래 緋色을 着用하는 사람들이 紫色을 빌려 쓸 수 있고, 원래 綠色을 着用하는 자는 緋色을 빌려 쓸 수 있다. 그 외에 官僚들이 緋色이나 綠色을 사용한지 15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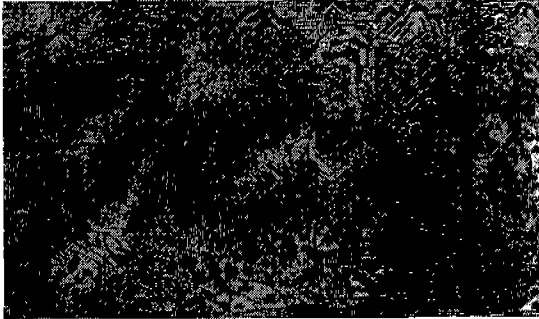
滿期되는 경우(眞宗時), 또 20년 滿期되는 경우(太宗時), 服色을 다시 下賜받을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官品이 낮고 職權이 높은 자를 “借”라고 부르며, 特殊한 경우로 인해 “借”를 사용하는 者도 있다. 이들도 正式, 名脚에 꼭 “賜”나 “借”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했다. “賜”란 것은 官品에 맞지 않는 服色을 特別히 下賜받는 것이다. 舊制에 의하면 借紫나 借緋를 하는 者는 魚袋가 없다고 했으나 後에 魚袋를 着用하기도 했다. 그것도 역시 “借”라고 불리었다³⁰⁾.

公服 중에 窄袖도 있다. 이것은 職級이 낮은 者들의 것이다. 예를 들어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 者나 內職人들이 着用하는 것이다.

宋 陸秀夫像 〈圖 12〉에서 宋代의 幘頭, 團領, 笏의 形態를 볼 수 있다. 〈圖 13〉은 北宋本 御製 祕藏詮 版畫의 장면으로 아래쪽의 部分圖 〈圖 14〉에서 볼 수 있듯이 幘頭, 團領을 착용하고 있다.

宋代의 公·常服 관련 기록을 史料를 통해 年代別로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30)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丹青圖書有限公司, P. 272



〈圖 13〉宋 北宋本, 御製祕藏詮版畫



〈圖 14〉圖 13의 細部圖

〈表 1〉宋代公·常服의 年代別 比較

年代	年代別 比較
960 ~	諸臣公服은 常服.
1279	紫·朱·綠·靑으로 區別. 曲領大袖, 橫襟
1006	公服에 窄袍가 있었음
1289	三品은 盤領, 縫腋. 아래주름, 길이 정강이 빼까지 음.
1161~	文官 五品以上은 紫, 六·七品은 緋, 八·
1289	九品은 綠이며, 五品以上은 文樣이 있되, 種類, 크기를 制限하였음
1175	文資官公服에 襟을 加함
1206~	百官公服은 展脚 幘頭, 京偏帶, 大袖盤領.
1368	四品以上 紫, 六·七品은 緋, 八·九品은 綠羅 四品以上은 文樣이 있되 種類, 크기 를 制限하였음

V. 宋代 以後의 公·常服

元은 蒙古族 징기스칸이 1233年 金을 滅하고, 1279年 南宋을 滅함으로써 最大의 領域을 차지한 나라이다. 元은 前代 遼, 金의 異民族 建立王朝와 마찬가지로 自民族을 존중하고, 漢族을 卑下시켜 蒙古族의 衣服 습관을 貴하게 여기고 漢族의 風習을 경멸하였다.

成宗 大德 六年(1302年; 開國 100年後)에 祭天時 命을 내려 獻官以下 諸執事가 漢式公服을 着

用하고 行禮하게 하였는데 大禮用으로 百官의 公服用은 이때가 처음 시작이다³¹⁾.

元의 百官의 公服은 羅로 만들었고 大袖盤領이며 右襟이다. 1品은 紫色이며, 花飾은 徑이 5寸인 大獨科花이고, 2品은 徑이 3寸인 小獨科花이고, 3品의 直徑은 2寸, 가지와 잎이 없는 散答花이며, 4·5品은 直徑 1寸5分인 小花이다. 6·7品은 緋色이고 花飾은 直徑 1寸인 小雜花이며 8·9品은 綠色으로 花飾이 없는 無紋이다. 머리에는 漆製展脚幘頭를 썼는데 武衛는 交脚을 썼다. 帶는 1品은 玉 혹은 花, 혹은 素였고, 2品은 花犀, 3·4品은 黃金荔枝였고, 5品以下는 烏犀이다. 靴를 신었다³²⁾.

蒙古族 特有의 答子帽나 重頂冠, 質孫服 등으로 天子 및 百官服에 使用하였지만 一部 漢族이 使用하던 衣冠을 並行하여 着用하였으니 대체로 唐, 宋, 金에서 그 制度를 授用하였고 英宗(1321年) 때 天子冕服, 百官 祭服, 朝服, 公服 등을 古寸의 制度를 參酌하여 制定한 것은 그 代表的 例라 할 수 있다³³⁾.

元代의 百官服은 宋, 遼, 金의 制度와 크게 差異가 없다고 본다.

明나라는 1368年인 高麗 恭愍王 十七年에 漢人 朱元璋이 元末의 大東亂을 당하여 세운 나라이며, 恭愍王 十八年에 使臣을 高麗에 보내어 即位를 통고한 바 있다.

31) 元史 卷七十八, 志二十八, 輿服

32) 元史, 卷七十八, 志二十八, 輿服 一

33) 任明美. 蒙古服飾. 耕春社. 1992. P. 343

明太祖는 元朝治世 百餘年에 卑俗한 風俗을 고쳐 唐末의 것으로 復古시키려했다. 明에서 禮制가 確立된 것은 洪武 二十六年과 永樂 三年이다.

明의 文武官 公服은 洪武 二十六年에 定하였는데, 在京文武官은 朝秦·侍班·謝恩·見辭時에, 그리고 지방에 있는 文武官은 公座時에 모두 公服을 입었다. (後에 朔望을 제외하고, 매일 常服에 便服을 使用하였다. 이때의 公服은 漆紗幘頭를 썼고, 盤領右衽袍에 소매넓이가 3尺이었으며, 花樣은 元나라와 같았다.

常服은 洪武 三年에 定하여 常朝視事에 着用하였는데 烏紗帽를 쓰고 團領衫을 입었고 帶를 하였는데, 洪武 二十年에 補를 더하였다³⁴⁾.

VI. 結 論

本論文은 中國宋代의 百官冠服中公·常服을 中心으로 研究하였다. 本研究는 宋代의 冠服制度를 고찰하기 위해 史料를 根據로 하여 年代順으로 究明하였고, 圖證資料의 該當年代와 史料의 記錄事實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宋代는 우리나라의 高麗와 相互間에 끊임없이 影響을 주고받아 왔고, 그것은 政治, 經濟, 社會面에서뿐만 아니라 服飾制에서는 더욱 그러하였기에 宋代의 公·常服 研究에 의미를 두었다.

宋이 建國된 해(960年)의 公服制度는 宋의 建國과 關係없이 唐制(開元令)에 準한 것이다. 前期宋의 公·常服色은 紫·朱·綠·靑의 四色 公服制度이고 元豐 元年(1078年) 紫·緋·綠의 公服制度가 中興 이후까지 使用되었다. 借紫, 借緋의 制度가 盛行하였는데 宋에서는 1034년에 이루어졌다.

宋代의 公服은 幘頭, 團領袍, 帶, 魚袋, 笏, 靴로 構成되었다. 宋史 輿服志에는 「公服從省 謂之常服」이라 하여 從省服일 때는 公服이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常服이라 하여 公服과 常服의 區別

이 없었으며 官吏의 視務服으로 생각하였다.

幘頭는 主로 平脚 幘頭이고 脚이 약간 위로 향하거나 약간 아래로 굽어진 形態로 나타난다.

團領袍에는 袖幅과 袍의 길이에 따라 階級的 區別이 있었고 橫襴을 가하였다.

帶는 職品에 따라 金, 角, 鞞등 服材와 裝飾에 等差를 두었고 魚袋를 찻었다. 笏은 階級에 準한 服色에 따라 材料를 달리 하였다.

앞으로의 課題는 우리나라와 中國의 服飾, 특히 冠服制度에 대한 深度깊은 研究가 더많은 圖證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活潑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參 考 文 獻

- 江少虞, 宋朝事實類免, 源流出版社.
- 高承, 事物紀原, 臺巒商務印書館, 1965.
- 舊唐書, 景仁文化史, 1977.
- 金史, 景仁文化史, 1977.
- 戴爭, 中國古代服飾簡史, 1986.
- 敦煌莫高窟 五, 文物出版社, 1987.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 文化出版局, 1979.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中世編), 文化出版局, 1984.
- 常任俠, 郭淑芬, 芬非洋, 中國服裝史研究, 黃山社, 1987.
-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 中國服飾五千年,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4.
- 西宋, 宋會要輯稿.
- 宋代研究文獻提要, 宋史提要編纂協力委員會編.
- 宋史, 景仁文化史, 1977.
- 新唐書, 景仁文化史, 1977.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龍田出版社, 1981.
- 王博, 唐會要, 臺北, 臺巒商務印書館, 1966.
-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中華大典編印會,

34) 周 錫保, 前掲書, P. 354.

- 1978.
- 王圻, 三才圖會, 臺北 成文出版社, 1970.
 - 遼史, 景仁文化史, 1977.
 - 元史, 景仁文化史, 1977.
 - 原田淑人, 西或發見의 繪畫로 본 之仁子 服飾의 研究, 東洋文庫刊行 大正 10年.
 - 月刊 故宮文物 28, 國立故宮博物院.
 - 任 明美, 蒙古服飾, 耕春社, 1992.
 - 任 明美, 中國의 古代服飾研究(1), 耕春社, 1988.
 - 佐伯 富, 東洋의 歷史(6), 宋의 新文化, 人物往來社, 昭和 42年.
 - 周 峰, 中國古代服裝參考資料, 北京燕山出版社, 1987.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1983.
 - 周泝高 春明, 中國古代服飾風俗, 陝西人民出版社, 1988.
 - 中國壁畫全集, 敦煌9 五代 宋, 中國壁畫全集編纂委員會編, 1990.

ABSTRACT

The Study of Koranbok of the Song Dynasty

-Based on the study of Gongbok and Sangbok-

This thesis is mainly on the study of

Gongbok(official dress) and Sangbok (usual dress) in the system of official outfit of the Song dynasty.

The Song dynasty has not left many historical remains due to the vicious cycle of intermittent internal disturbances and several outside invasions.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e Song dynasty which identified official dress with usual dress saying "the official dress of every government officers is his usual dress", this thesis is concentrated on the study of official dress and usual dress among many different types of official outfit.

In the Song dynasty had survived until the year of 1123 from the year of 960, using the four colour system of purple, chinese red, green and blue. The four colour system of purple, deep red, green and black of official outfit of the Song dynasty the first year of Wonpung's reign and wearing Eodae(fish sack) is a sure sign of influence of the system of the Song dynasty.